절차탁마의 정신으로 전문지 역할을…

OCI 대표이사 위원장 **백우석**

우리나라 화학기업들이 걸어온 길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 온 <화학저널>이 어느덧 창간 20주년을 맞게 되었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.

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애독자 중 한 사람으로서, 오랜 세월을 부침 없이 한 우물만 묵묵히 파온 화학저널의 우직한 의지에 먼저 큰 박수를 보냅니다.

화학저널은 전문지로서 풍부한 지식을 전파해온 것은 물론이고, 화학산업의 지형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우리 화학산업을 계도해왔습니다. 또 깊이를 갖춘 참신한 소식으로 화학업계 종사자들을 하나로 엮는 우리만의 공감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.

앞으로도 지난 20년간 갈고 닦아 온 절차탁마의 정신으로 우리나라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언론활동을 계속해나가시기 바랍니다.

글로벌기업으로 눈부시게 성장중인 우리 화학기업 종사자들에게 항상 값진 양질의 뉴스를 전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.

더불어 <화학저널>도 우리의 소식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대한민국 대표 화학 전문매체로 더욱 빛나는 발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.

창간 20주년을 거듭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

<화학저널 2011/5/23_30>